

니까야서 길을 묻다 2. 다양한 불교 용어의 독법(讀法)

불교 大意 효과적 설명 필요

현존하는 초기불교 경전인 팔리어본 다섯 <니까야(Nikāya, 모음집/분류한 것)>와 한역(漢譯)된 네 가지 <아함(阿含, 전승된 것)>에 담겨 있는 수많은 언어들에 무엇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까? 또한 거기에서 제시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간단한 형태로 등장하는 이 질문은 불교의 ‘목적’과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월포라 라홀라’의 저서에서 보듯이 ‘부처가 가르친 것’에 대한 파악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다.

초기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불교 용어들은 대단히 많다. ‘삼법인(三法印), 오온(五蘊),

첫 번째 길은 수많은 불교 용어들이 불교의 교리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암호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여 설명하려는 태도의 확보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불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의 필요성이다. 비록 어설피고 부족한 언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써 풀어내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을 때 이웃 종교 그리고 다른 사상들과 대화 가능한 언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지평을 확보하는 일이다. 곧 경전의 내용 전체를 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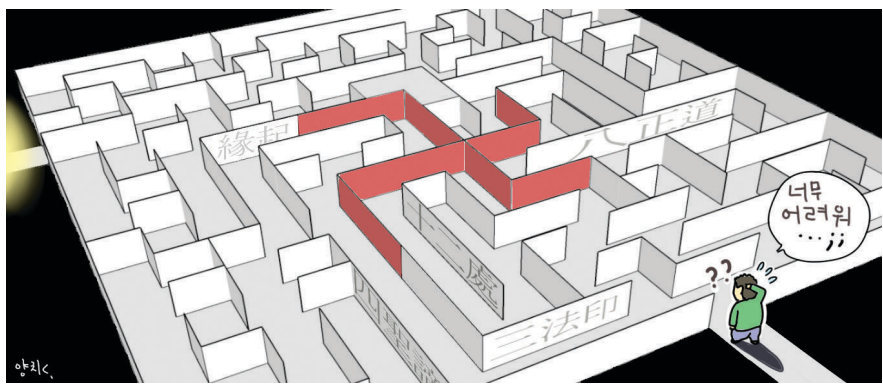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십이처(十二處), 연기(緣起), 중도(中道),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의 개념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의 체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사색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개념들은 서양의 학문전통에 나타나지 않던 하나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설명체계라는 점, 그래서 처음부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을 띠고서 우리들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체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교 개념들의 존재는 부담을 주며 그 의미가 모호하고 어려울수록 하나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 먼저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대의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적으로 탐구한 이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 또는 독법(讀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기획의도를 읽어내는 관점의 확보이다.

이러한 ‘유익함과 청정성의 추구’라는 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니까야>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정화하여 욕망이나 집착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함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며, 셋째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소멸되어 참된 평온을 이룩함(涅槃)’에 있다. 그러나 유익함과 청정성의 지향은 불교적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궁극의 목표는 아니다. 해탈과 열반의 길의 성취가 수행의 여정에서 가장 정점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부산사하사암무료급식소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1995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매주 월, 화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2013년 6월 현재 사하보훈회관 지하로 자리를 옮겨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번마다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하며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김치·쌀 나눔, 경로잔치,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3년 사하구청장상, 2015년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스님들도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장상, 부산경찰청장상, 사하경찰서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여러 명이 먹을 밥과 반찬을 혼자 만드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낀 법, 많은 이들이 일손을 보태면 달라진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일도 가능케 하는 무궁한 힘을 갖고 있다.

200명을 위한 공양을 만드는 일 역시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대형 사찰도 없었을 뿐더러 지역형편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하구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팔뚝 뚫었고, 40년간 그 기적을 이어오고 있다. 바로 부산 최고 빈민지역으로 불렸던 사하구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매일 한 끼 식사를 정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다.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이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지난 11일 방문했다.

정성과 배려로 공양 올려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단을 내려가며 꾸부정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한걸음 한 걸음이 벅차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어르신들은 발걸음이 급한 기차를 위해 길을 내어주며 연신 쉬었다 내려가길 반복했다.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부산 괴정1동에 위치한 사하보훈회관 지하에 동지를 틀었다.

오전 10시 30분,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빈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리에 편히 앉아 배식을 기다렸다. 한 할머니가 음식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봉사자가 ‘앉아계시라’며 일일이 식사를 배달했다. 식판에는 뜨끈하게 끓인 소고기국과 오색으로 예쁘게 빛은 송편, 각종 나물들이 먹음직하게 담겼다.

“1년에 2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 계단도 적고 오는 길도 많이 가파르지 않고...” 사하구불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 해우 스님(약수사)은 말씀을 흐렸다. 어르신들을 위해 값진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편한 장소로 어르신들을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하다. 해우 스님은 오랜 숙원 사업이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식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의 급식소도 하얗게 도색해 정갈한 벽과 넓은 공간,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깨끗한 부엌까지 별다른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 스님의 ‘조금 더 나은’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해우 스님은 “사하구불교연합회관을 하나 마련해서 추울 때는 더 따뜻하게 모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모시고 싶다. 계단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더욱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사방방처럼 문화생활도 하기 좋을 것 같다. 이 공간이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종이 접기, 이발 등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밝혔다.

스님과의 인터뷰 중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이 합장인사를 올렸다. 스님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거듭 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님에게 엄지를 ‘척’ 들어 보이며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격려하는 어느 할머니의 미소가 꽤 행복해보였다.

40년간 빈민지역 위해
지금의 급식소는 1976년 사하시장에서 진행하던

무료급식현장이 모태다. 당시 사하불자회가 매주 월·화에 무료급식에 동참했고,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스님들은 수·목을 담당했다. 현재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돕는 사찰은 10개, 그 가운데 8개 사찰이 함께 했었다.

“당시 연세 많으신 스님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셔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선배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귀감이 되어주셨죠. 굶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당시에는 무료급식이란 말조차도 생소했습니다. 그때 사하시장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바닷길 동참했죠. 누가 주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더부살이였어요.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아쉽다는 것만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봉사를 더 늘려나갔습니다.”

이후 1980년 스님과 불자들은 부산 용두산 정수사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소에도 찾아갔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공양을 담당했다. 여름에는 800명, 겨울에는 600명 정도가 그곳을 찾았다. 여름보다 겨울에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동사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 1984년 스님들은 다시 사하구 지역에 집중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확한는 사하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절정 고아원 집결지였습니다. 버림받은 할머니들이 모여 살던 모자원, ‘빈민굴’이란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도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가난했던 절정 고아원들의 정착지를 철거하고 번방이었던 사하구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런 그들에게 제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40cm (50구) @73,000
- 23cm (50구) @65,000
- 50cm (50구) @75,000
- 25cm (50구) @65,000
- 1 m (50구) @90,000
- 30cm (50구) @65,000
- 2 m (25구) @80,000
- 35cm (50구) @70,000

고급 국내산양초

밀 대(70) 돈타레(40) 원기둥(20) 박스 @90,000원

한지임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대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임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7.5×30cm

임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대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기: 60×7cm (빨강/노랑)
• 포장: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장: 100매 비닐포장
• 크기: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기: 9×20cm
• 포장: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뭇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흰색 / C: 노랑- 날마다 좋은 날 피소서.
B: 흰색 / D: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

“각 사찰 十匙一飯 정성 전해”

공평했던 땅은 겨우 10평 남짓, 쫓겨나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이들을 위해 스님들은 1995년 6월 정식으로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오직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문을 열었다. 돈 뿐만이 아니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청소를 하고 식기를 닦으며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바빠 움직였다.

“그때 처음 임대했던 장소가 어느 가정집 지하였습니다. 이전에 불이 났던 곳이었는데 손 불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죠. 곰팡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 배관 시설, 상수도 공사, 조리 시설 까지 새롭게 장만해야 했습니다. 인력을 부를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서서 모두 함께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급식소를 찾아 매주 월·화요일마다 6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자재를 다듬어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자 금세 입소문이 퍼졌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확실한 위생을 위해 방장고도 두지 않았다. 그날 마련한 재료를 당일에 소비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저희는 방장고를 두지 않습니다. 신선함을 위해서는 방장고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가장 신선한 것은 그날 사서 그날 바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건강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위해 저장한 것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성과 배려로 마음을 다한 공양은 소문이 났고 100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35평의 공간으로는 턱 없이 부족했다. 어른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스님들은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추운 날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더 좋고 따뜻한 공간에서 모시고 싶다는 일말뿐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다시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그 원력으로 2013년 6월 지금의 사하보훈회관 지하 1층에 100평의 공간을 얻었다. 매주 월, 화 오전 11시가 되면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올해 급식소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이 총 8000만원이다. 소소하게 드는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오직 급식과 시설 유지에만 소요되는 금액이다. 스님들은 보금

자리가 된 이곳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놓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또 가장 의미 있다고.

나눔은 삶이 되어

오랫동안 큰 스님들과 함께 활동하며 그 삶을 면면히 보왔던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스님들은 “나눔이 곧 습관이 됐다”고 했다. 이웃을 살피기 위해 마을의 통장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는 용주암 정홍 스님은 나눔 수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통장들은 어느 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잖아요. 그분들을 알아두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좋더군요. 그분들을 통해 손주를 데리고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사는 할미님들을 알게 됐어요. 밤에 물레 쌀을 전달해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라시며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나눠드리러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하구 10여개 사찰 동참

지역민 사랑방으로 거듭나

불교연합회관 건립 발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지역 6개 병원 인연 맺고

환우들 찾아가 위로봉사도

칠보사의 승공 스님은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오면 곧장 뛰어가 털신을 사서 신겨드린단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요즘에는 인재불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식소 앞에 종합학교인 해동고교가 있어요. 해동장학회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김장을 담아 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던 약천사 법인 스님은 3회째가 되던 해 직접 김장김치를 이고 배달에 나섰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매년 그분들에게 김치가 전달됐는지 했어요. 근데 속상하게도 전달이 안 됐더군요. 보살님들과 함께 직접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 사실 감사

해 하는 건 결국 보살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봉사를 하며 알게 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가르침의 현장이 됩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 어느 집이 형편이 어렵냐고 묻는 게 버릇이 된 대부암 선혜 스님, 소리 소문 없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슴 속 배처럼 됐다는 무학사 보승 스님, 무슨 일이 있어도 급식소를 찾아 봉사하는 보살들이 가장 고맙다는 문수암 묘덕 스님, 총무 소임을 맡아 매달 회원 스님들과 불자들을 격려하며 살림을 보살피고 이끌고 있는 해정암 송우 스님, 성불사 해원 스님, 길상사 자인 스님, 그리고 스님들을 따라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불자 모임 지장회 이규연 회장까지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행복 위한 사회운동으로

스님들의 활동은 무료급식소에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스님들은 매달 첫 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더 나은 나눔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그렇게 스님들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방문해 환우들을 찾아 손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한 위로연을 두 달에 한 번씩 베풀었다. 그렇게 방문하고 인연을 맺은 병원만 6군데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경로잔치, 장수사진 촬영, 다대포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가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4대악 근절 캠페인, 사하구 관내 쌀 전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불자의 밤 한 마당, 고혼영가 수록제, 을숙도 낙동강 철새먹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스님들은 무료급식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화합’을 꼽았다. 활동하는 스님들과 불자들만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하나가 됐다고.

“처음에 급식소 문을 열 때만 해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았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봉사도 하고 쌀을 기부하기도 해요. 지역민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구심점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급식소가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발원합니다.”

음식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필수요소다. 이런 에너지에 보살핌과 사랑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얻는다. 나눔으로 얻은 행복으로 고고슬고 지은 밥이 온 세상을 두루 밝히길 발원한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07-6614-08(사하사암무료급식소)>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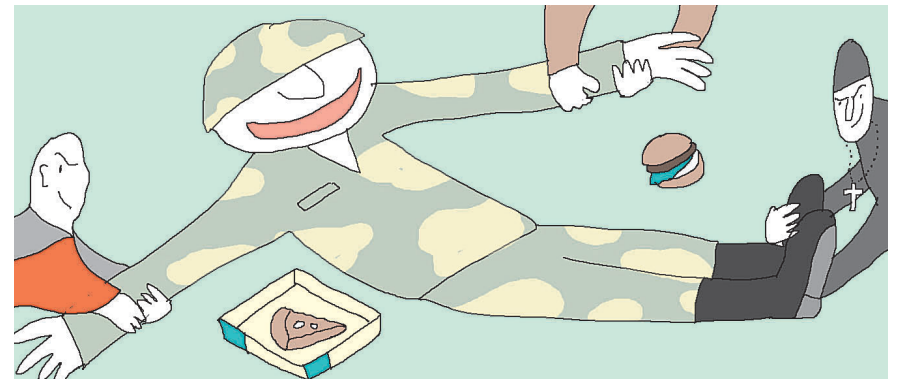
한 지붕 세 가족 포교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국군이며, 그 가운데 가장 병력이 많고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육군이다.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부터 내륙 곳곳의 안전을 지키는 향토사단까지 그 수만도 50만 명을 넘는다. 하지만 그 중 군중법사는 몇 명일까? 89명뿐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50만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불법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 포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비단 군중법사뿐만이 아니다. 현재 군에는 목사와 신부 그리고 원불교 교부까지 군종장교로 파송돼 있다.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신행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포교를 잘못해서인 것 같고, 군중법사의 책임인 것처럼 자책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포교 잘하는 덕분에 양 기분이 좋기도 했다.

덕분에 한동안 부대에서는 신자수를 늘리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종교행사를 하는 일요일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종교 간 주고받는 총알은 간식이었다. 성당에서 햄버거를 주면 다음에는 교회에서 피자를 주었다. 그러면 다음 주엔 법당에서 국수를 맡아 나눠주었다. 장병들에게는 그야말로 간식의 풍년이었던지만 한주 한주 그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 군종장교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그림·박구원

지만 군에서는 군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성탄절에 교회나 성당에 군중법사들이 가서 축하해 주고, 장기자랑 등에 심사위원을 맡기도 하며, 축하 선물을 나누거나 생일축하 기념으로 꽃이나 케이크를 보내기도 한다. 또 부처님오신날에 목사와 신부들이 법당에 방문해서 부처님 관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디 각각의 종교를 대표해서 군에 파송된 것이기에 미묘하게 자존심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과거 이러한 자존심 문제가 군내 종교 인구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인구를 조사하듯 군에서도 간부를 포함한 모든 병력들의 종교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임관하는 군종장교의 종교별 인원 배정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물적·인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규모가 결정된다.

군종장교들에게는 은근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도 했다. 부대의 불교신자가 전 군 평균치보다 한참 부족하더라도 하면

특히 군법당은 지금처럼 자매결연이나 후원이 많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지급되는 봉급이 고스란히 장병들의 간식비와 부대 위문비로 들어갔다. 다행히 지금은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에서 많이 벗어났다. 서로 자존심만 세우느라 정작 신경써야 할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에서 비롯된 반성을 했기 때문이다. 본질은 얼마나 ‘불교에 많이 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불자를 키워내는가’가 아니겠는가? 숫자놀음에 일희일비하는 우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신자 파악도 이제는 중지됐다.

한 지붕 세 식구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지붕 아래 세 가족, 아니 몇 년 전부터는 네 가족이 되었다. 서로 다른 뜻으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지만 나라 위해 젊은 나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건강한 심정으로 지극한 신심을 갖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본다.



박명민 군중법사(호국청원사)



급식소 스님들의 요양병원 위문공연.



2013 사하구자원봉사의 날 시상식.



환우에게 위문품을 전하는 사하구 스님들. 왼쪽서 두 번째가 회장인 혜우 스님.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범용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주구 12E 3구, 4구 인지구 26E 4구, 5구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원(노원지) 진분종 연분종 택색 금색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일지서형 S형 T분리형

LED배서형 LED홀더형 건전지 조

▶방생, 탐방, 각종 행사용으로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